

関 東暉【日本語チーム 討論補助】

総合文化研究科地域文化研究専攻修士課程

2013年8月2日、東京大学の福武ラーニングシアターで東京大学・ソウル大学学生討論会が開かれた。日本と韓国を代表する大学生・大学院生が多く集まり、言語別チームごとにそれぞれ自由にプレゼンやディスカッションを行った。そして私は、「日本語チーム」のサポート役をつとめることになった。韓国で生まれ育ち、日本で大学生活を送った私にとって、韓国の大学生と日本の大学生がどのように議論を進めるのかということは、とても興味をそそられるものがあった。

まず、「日本語チーム」はソウル大生が用意した問題提起の映像をみんなでみることから始まった。5分程度の映像だったが、ソウル大生への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大学の危機」とも言われている今の時代に、「大学は何のためにあるのか」、「このままでいいのか」と問い直すものであった。映像が終わり、「東大のみなさんはどうですか。」という質問から、「日本語チーム」の活気あふれる議論は始まった。

議論は二つのチームに分かれて行われたが、大学、そして大学生活をめぐる、それぞれのチームが議論を違う方向へと進めていったのがとても印象的であった。

チーム A では、大学の意味を、大学という空間を主体的につくっていく学生たちの生活から探ることにした。「大学は何のためにあるのか」という問いには、学生たちが大学をどのように捉えているのかという当事者からの視点が欠かせない。そのため、学生たちがどのように大学生活を送っているのかと問い直すことで、結論を導きだそうとしていた。そして韓国と日本における学生生活を比較することで、それぞれの立場を相対化させようとしたのである。

一方、チーム B は、大学生の生活というよりも、そもそも大学生の行動を規定する大学制度が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のかに焦点をあて、議論を進めていった。「大学は何のためにあるのか」という問いが、大学の存在理由を問題にしているとすれば、それぞれの社会において大学が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大学システムからその答えを導き、比較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議論における最初の切り口が違かったにせよ、韓国社会と日本社会における「大学」、「大学生」の意味を問い直し、比較することを目指した二つのチームであったが、それをひもといて行くにつれ、結局のところ、韓国社会、日本社会がどのような現状と問題

点への問いにつながっていった。

そういう意味で、今回の討論会は、これから社会を担って行く「大学生」のリアルな視点からそうした韓国社会や日本社会を見つめ直す、良い機会になり得たと思う。まずはお互いを知り、理解を深めていくことで、決して自分たちが置かれている状況が「当たり前」ではなく、それぞれの社会的・歴史的構造と密接に関わっていると気づくことの大切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いか。

また、それは単なるお互いの違いや、それぞれのバックグラウンドが違うことだけを確認ものにとどまらず、それと同時に同じグローバルな社会変動が経験される時代を生きる同じ世代として、差異を越えひとつの方向へと「大学」が変わっていくことに気づく。つまり、社会の中で大学が持つ意味がどんどん矮小化していき、「実学中心」になってきたこと、そしてそれが就職活動という、大学を経て「実社会」へと向かう通過儀礼に如実に表れていたことを確認し、その現状とどう向き合えばいいのかについて国境を越え話し合う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

민동엽 【일본어 토론보조】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석사과정

2013년 8월 2일, 동경대학교에서 동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언어별로 나뉜 팀별로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본어팀의 서포트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본에서 대학교 생활을 보낸 나로서는, 한국의 대학생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과연 어떤 토론을 펼칠게 될 지 너무나도 흥미롭게 기대하고 있었다.

우선, 일본어 팀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해 온 문제의식을 다룬 내용의 영상을 다 같이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5분정도 되는 영상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학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있어서,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고 되물어보는 것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동경대 학생들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서, 일본어 팀의 활기찬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은 두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대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각자의 팀에 따라 토론 방향이 다른 쪽으로 진행 된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팀 A에서는, 대학의 의미를 대학이라는 공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찾기로 하였다.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명제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당사자로부터의 시점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결론을 추출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학생생활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상대화 시키려고 하였다.

반면, 팀 B는, 대학생의 생활보다는, 대학생의 생활을 규정하는 대학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해 갔다.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대학의 존재이유를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대학시스템의 비교에 의해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토론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한국사회와 일본사회 안에서의 대학과 대학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두팀의 토론은 점점 대학을 넘어 한국사회와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명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이제부터 각자의 사회를 짚어지고 갈 대학생들의

리얼한 시점으로부터 그러한 한국사회와 일본사회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로에 대해 알고 깊은 이해를 통해서 결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글로벌한 사회적 변동을 느낄 수 있는 같은 세대로서, 차이를 넘어 같은 방향으로 대학이 변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즉, 각자의 사회안에서 대학이 점점 왜소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학중심의 대학으로 차츰 변형되어 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점이 대학과 실제 사회의 교차적 역할을 지닌 취업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수 있는지를 국경을 넘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韓国語チームの討論を参観・サポートして感じたこと

【韓国語 討論補助】小池 修  
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課程

私が担当した韓国語チームの討論テーマは「日韓の相互認識とメディア」であった。平素より抱いていた問題意識であったため、日韓の若い学生たちがどのような意見を持っているのか大変興味深く見守っていた。

当初東京大学側参加者の学生からマスメディアとインターネットの問題点についてプレゼンテーションがあった。その内容としては、マスメディアとインターネットが日韓の相互認識に与える影響、マスメディアの問題点と対処方案、そしてインターネットの問題点と解決方法であった。日本の言論 NPO と韓国の東アジア研究院(EAI)の調査結果などを具体的に参照しつつ、相手国の情報を地上波 TV や新聞を中心とするマスメディアを通して得ていること、相手国の報道の自由や客観性に疑問、それらに対して批判的、懐疑的に見ていることなどが示された。両国のマスメディアに共通する問題点としては相手国の主張の根拠を意図的に無視していること、過激な発言を繰り返し報道していること、愛国心に訴える内容を強調していること、相手国に対する否定的な報道内容を強調していることなどが指摘された。インターネットの問題点としては匿名性が挙げられたほか(「2ちゃんねる」、「イルベ」)、競争のため利用者の注目を集めるため刺激的・極端な報道がなされる点、若年層の意見がすべての年齢層の意見のように見えてしまう代表制の問題が指摘された。これを解決する方法としては若年層以外も含めて定期的に時事問題に関して多様な世代がオフライン討論会を行い、オンライン上で報道するのはどうかという提案がなされた。

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続いて討論が行われたが、大きく分けて3点の論点が出された。第一にフェイスブックとツイッターについてである。フェイスブックには政治的な内容であっても堂々と見せることができる内容を投稿し、ツイッターにはその時に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書く傾向があるという意見があった。また、フェイスブックは投稿に弱点があると攻撃を受けることもあるが、それが一定のフィルタリングの機能も果たしているといった意見が出された。第二にマスメディアの持つ問題点についてである。特に両国間の歴史問題や、原発事故による放射能の影響といった 이슈で部分的に問題が拡大されるといった点が指摘された。竹島/独島問題の例では日本のマスメディアが韓国政府の立場も記述するなど、より公平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あった。第三に愛国心と日韓相互の関心の差異についてである。韓国は愛国的報道への偏向、政府と一般人の認識の差異が指摘され、日本は基本的に関心がないが世代差があるという点が指摘された。また、数年前からの大きな変化として話題に上ったの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日本に対する理解、友好的な論調の登場したことである。そこには日本政府と日本人に対する視覚の違いが見られ、日本政府には批判的だが、日本人や日本文化には友好的というもので

ある。韓国側からは、日韓の過去を浮き立たせて子供たちに教育をするのも葛藤の原因であり日本を嫌うのが愛国だというマインドをな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自省的な意見も出された。サッカーで韓国は日本をライバル視しているが、逆に日本は韓国をどう認識しているのかという韓国側の質問に対して、日本側からは世代によって異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回答がなされたが、日韓の愛国心と相互に対する関心の差異を象徴するのがサッカーの日韓戦だというまとめがなされた。

事前には意見が相当激しく対立することも予想していたが、ふたを開けてみれば双方とも認識が一致する部分が少なく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日韓関係の未来を担う世代の包容力に安心する半面で、膝を突き合わせて話をすればお互い理解可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国家対国家の関係にあっては葛藤が繰り返される日韓関係の難しさをあらためて認識した。ひとつ残念だった点は、討論の準備期間や学生たちの専攻の問題もあったと思うが、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指摘されたような問題点を解決する具体的方法についてほとんど討論がなされなかったことである。この点についてはサポートを担当した者としても反省せねばならないところで、またこのような機会があればより実のある討論になるように努力したい。

討論をサポートしつつ考えた個人的な所見を述べて感想に代えたい。学生たちが指摘した通り日韓関係におけるマスメディアの役割は大きいのであるが、管見では両国のマスコミは必ずしもその役割を十分に果たしていないと思われる。雑駁な類型化という批判を承知で書けば、日韓双方のマスメディアの報道の仕方は二通りがあって、一つは相手国を「一枚岩」として描写して敵意を醸成するタイプ、二つは相手国の特定の政治的な性向を持つグループに「肩入れ」をして、そのグループが大勢を占めれば何もかもが上手くゆくと考えるタイプである。このいずれタイプも相手国に対するステレオタイプを植え付けるものであるといえよう。その処方箋として相手国内の見解の多様性に配慮しつつ、確実に民意の少なくとも無視できない一部の反映である特定のグループを「悪魔化」するような報道は控えるべきであろう。また、ある学生が述べたように日韓はお互いを自省のきっかけとなる鏡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マスメディアが先頭に立って時に非理性的・感情的に映りがちな相手国の意見表明や行動を、理性的・合理的なものとしてその背景を理解する努力を常に怠らないようにすべきだと考える。

最後にこのような貴重な機会を提供してくださった、ソウル国立大学校日本研究所の南基正先生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様、本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の長澤裕子先生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様、参加した学生たちに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ます。

내가 담당한 한국어팀의 토론 주제는 「한일 상호인식과 미디어」이었다.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기 한국과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흥미롭게 토론을 지켜보았다.

먼저 도쿄대 측 참가자가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이 한일간의 상호인식에 미치는 영향, 매스 미디어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그리고 인터넷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의 언론 NPO 와 한국의 EAI 의 조사 결과등을 구체적으로 참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의 정보를 지상파 TV 나 신문이 중심이 되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상대국의 보도의 자유나 객관성을 의문시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비판적,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매스 미디어에 공통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상대국 주장의 근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점, 과격한 발언을 되풀이하여 보도하는 점,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점,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인터넷의 문제점으로서는 익명성의 문제(2 채널, “일베”) 이외에도 미디어 간의 경쟁 때문에 이용자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자극적·극단적인 보도가 행해지는 점, 젊은층의 의견이 모든 연령층의 의견인 양 보여지는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젊은층 이외도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시사문제에 관하여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도 보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나왔다.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크게 나누어 3가지 점의 논점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서다. 페이스북에는 정치적인 내용이라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하고, 트위터에는 그때그때 느낀 것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페이스북은 글에 허점이 있으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이 일정한 필터같은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둘째로는 매스 미디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다. 특히 양국간의 역사문제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문제 같은 이슈에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의 예에서는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한국 정부의 입장도 보도하는 등 비교적 공평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셋째로 애국심과 한일간의 상호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 대해서다. 한국은 보도의 애국 편향, 정부와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가 지적되었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나

세대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몇 년전부터의 큰 변화로서 화제에 오른 것은 인터넷상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나 우호적인 논조의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일본정부와 일본인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여, 일본정부에는 비판적이지만, 일본인이나 일본문화에는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측에서는 한일간의 과거사문제를 부각시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며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없애야 한다는 자성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가대표 축구경기에서 한국은 일본을 라이벌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하는 한국측의 질문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세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회답이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애국심과 서로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 축구의 한일전이라고 정리되었다.

시작되기 전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까 쌍방의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짚어주는 세대의 포용력에 안심하는 반면,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되풀이되는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한일 상호인식과 미디어에 대해 다방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존재한다. 물론 토론의 준비 기간이나 학생들의 전공 문제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담당한 사람으로서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보다 알찬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토론을 서포트하면서 생각한 개인적인 소견으로 감상에 대신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지적한 대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크지만, 관건으로는 양국의 매스 미디어가 반드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압박한 유형화라는 비판을 각오하여 쓰면, 한일 쌍방의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방법은 2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상대국을 「일률적」으로 묘사해서 적의를 조성하는 유형, 둘은 상대국의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룹에 「응원」을 하고, 그 그룹이 대세를 차지하면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유형이다. 상기한 두 가지 유형의 매시 미디어 보도는 모두 상대국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처방전으로서 상대국 내의 견해의 다양성을 배려하면서, 대중 무시할 수 없는 일부를 반영한 특정한 그룹을 「악마화」하는 보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자성의 계기가 되는 거울로 삼을 수 있게끔, 매스 미디어가 앞장 서서 비이성적·감정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는 상대국의 의견 표명이나 행동을, 이성적·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서울 국립 대학교 일본 연구소의 남기정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여러분, 도쿄대 현대 한국 연구센터의 나가사와 유코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여러분, 참가해준 학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hemistry, School of Science

While surfing randomly on the University of Tokyo official website, there was this fascinatingly appealing title posted on the free board. "The University of Tokyo – Seoul National University cross discussion program" caught my attention instantly. It was about an opening for a English and Korean bilingual staff, which was a rare opportunity for me as I can only speak English and Korean fluently. In addition, I had a profound interest in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So discovering an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from two different nations, not to mention younger generation would provide me a great experience. With a bit of luck, I was accepted and soon instructed on preparation of the meeting. My role basically was to support and guide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With a premise that they should proceed with their discussion autonomously, we were told to step in whenever there is any digression or stagnation due to language barrier.

On the day students arrived, everything worked out fine from the start. Both sides of students were well organised. After a brief introduction, I gathered English discussion group that I was designated to one side and let the students start. Our group's focus was perceptions on other Asian nations in the view of Japanese and Koreans. Korean students kicked off with a presentation they prepared. Very graphical yet to-the-point presentation materials were easy to grasp for all students, especially for the University of Tokyo side. Soon after the presentation, we faced our first problem. There were too many people and the front-oriented chairs were fixed so many people could not face towards each other. Without my intervention, they came up with an expedient idea of dividing the group into two. It was so swiftly and smoothly done to think that they were people who only just met. When it came to deciding new chairs for the new sub groups, which just got divided, again, it was maturely done with celerity. As I watch them fully engrossed in discussion, I was impressed with their high level of English. Above all, a good all round standard of English on both sides helped promote an effective and impartial argument all along the session. Hegemony was balanced out throughout the debate and each member took turns to make sure everyone takes a part in.

Content of discussion was largely focused on perception towards China as a super power and issues regarding history of both countries. It seemed there was no objection to China becoming or already is one of the superpowers but whether it can transcend the U.S. or continue its economical boom was disputable. Some people pointed out that the intrinsic gap between rich and poor or other things like premature capitalism would work against China climbing up and placing them on the top of the nations league. The difference in opinions were varied depending on person rather than nationality, albeit there was a slight hint of Japanese students being concerned with Korea having a closer relationship with China which may lead to an isolation of Japan.

When they moved on to historical issues, circuitous discussion, as I personally expected, continued for a bit. Main assertion of Todai side was that learned Japanese citizens are fully aware of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they are simply trying to save words on enormities but emphasising good deeds because it is an axiom that no one wants to talk about bad things. SNU students replied that they can understand but they are worri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ay further conceal the dark side of their history over a point where it starts to become apocryphal.

In general, UT side, the University of Tokyo seemed to be surprised to hear directly from Koreans that there are many Koreans who have positive impressions about Japan, which contradicts the recent Japanese media survey highlighting the antipathy of

Koreans towards Japanese. They were consonant with that the general public in both countries are so credulous that politicians may usurp this to their benefit. As a follow-up, voicing out proxy for the enlightened people in both countries and its methodologies were shared. Overall, they were more excited about being able to ask things they had in mind face to face than putting undue effort for solutions which I thought was rather pragmatic and prudent approach to this gathering and is what one would expect from the number one university students.

As the session drew to an end, the worries I had had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had gone. Seeing fresh and intelligent students from both nations eager to come to conciliatory about the past and cultivate brighter future, I was positive that our tomorrow is going to be far better than people now anticipate. As a person who spent half of one's lif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it was agonising thinking about two closest and possibly a kindred root holding animosity towards each other. However, through this invaluable experience, I saw a gleam of hope for the make up of the past and a change of the paradigm. Producing many more interactive communications like this would be a start to a new history between Japan and Korea for the futures to come.

#### 전일 【E1-토론 보조자】

이학계연구과 과학전공 박사후보생

막연히 동경대학교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자유게시판의 한 문구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경대-서울대 교류프로그램”이라는 한국과 일본 대학교 학생들의 한일교류를 주제로한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게시물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 일본에 온지 6개월 밖에 안되어 영어와 한국어만 구사하는 내겐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던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다.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곧 관계자 분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토론중 영어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드디어 교류회 날이 밝아왔고, 시작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다. 양측의 학생들 모두 손발이 맞고 준비가 잘되었있는 느낌이었다. 짧은 개요후 나는 영어토론반 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우리 그룹의 주제는 아시아내에서의 한일관계였다. 먼저 한국학생들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테이프를 끊었다. 모두가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많은 생각이 베어있는 자료였다. 그러던 중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강의의자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다. 통제를 위해 내가 나서서 무언가 하려던 찰라, 학생들이 스스로 그룹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서브그룹의 리더까지 정했다. 처음만나 아직 서먹했을텐데, 발빠른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노련함에 박수를 아낄 수 없었다. 나아가 토론 중에 보여주었던 진행능력, 참여를 위한 열정뿐만아니라 양측의 높은 영어실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토론의 대부분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양측의 견해와 한일역사에 대한 입장이었다. 중국이 앞으로 혹은 이미 초강대국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입장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힘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들이 달랐다. 어떤 학생들은 중국의 빈부격차와 미성숙한 자본주의가 중국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견의 차이는 나라보다는 개개인에게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측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 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관련 토론이 진행될 때는 해결이 보이지않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오갔다. 동경대측의 의견은 학식있는 일본인들은 이미 과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안좋은 내용들은 가능하면 함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 측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일본정부측에서 더욱 숨기려고 할 경우, 현재 보이는 모습처럼 역사왜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동경대측에서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는 모습이였다. 두나라의 대중들이 언론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정치인들에게 쉽게 조정당하는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하며 해결방안모색까지 시도하였다.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보다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며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것이 진정 실질적인 접근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보여 과연 양국 최고의 명문대생답다고 느껴졌다.

교류회가 끝나가면서 전에 가지고 있던 한일관계에대한 걱정이 한층 씻겨지는 기분이었다. 양나라의 젊은피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밝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반을 영국에서 보낸 나에게 서로 마주하는 이웃나라가 깊은 갈등의 골로 인하여 매번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과 같은 교류회가 더 많아져 좀 더 소통에 힘을 쓴다면 후손에게 득이되는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막연히 동경대학교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던 중 자유게시판의 한 문구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경대-서울대 교류프로그램”이라는 한국과 일본 대학교 학생들의 한일교류를 주제로한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게시물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 일본에 온지 6개월 밖에 안되어 영어와 한국어만 구사하는 내겐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부터 깊은 관심이 있었던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졌다.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곧 관계자 분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토론중 영어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드디어 교류회 날이 밝아왔고, 시작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다. 양측의 학생들 모두 손발이 맞고 준비가 잘되었있는 느낌이었다. 짧은 개요후 나는 영어토론반 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우리 그룹의 주제는 아시아내에서의 한일관계였다. 먼저 한국학생들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테이프를 끊었다. 모두가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많은 생각이 베어있는 자료였다. 그러던 중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강의의자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다. 통제를 위해 내가 나서서 무언가 하려던 찰라, 학생들이 스스로 그룹을 나누기 시작하였고 서브그룹의 리더까지 정했다. 처음만나 아직 서먹했을텐데, 발빠른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노련함에 박수를 아낄 수 없었다. 나아가 토론 중에 보여주었던 진행능력, 참여를 위한 열정뿐만아니라 양측의 높은 영어실력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토론의 대부분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양측의 견해와 한일역사에 대한 입장이었다. 중국이 앞으로 혹은 이미 초강대국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입장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힘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들이 달랐다. 어떤 학생들은 중국의 빈부격차와 미성숙한 자본주의가 중국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견의 차이는 나라보다는 개개인에게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측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 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관련 토론이 진행될때는 해결이 보이지않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오갔다. 동경대측의 의견은 학식있는 일본인들은 이미 과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안좋은 내용들은 가능하면 함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 측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일본정부측에서 더욱 숨기려고 할 경우, 현재 보이는 모습처럼 역사왜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반적으로 동경대측에서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라는 모습이였다. 두나라의 대중들이 언론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정치인들에게 쉽게 조정당하는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하며 해결방안모색까지 시도하였다.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보다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며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것이 진정 실질적인 접근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보여 과연 양국 최고의 명문대생답다고 느껴졌다.

교류회가 끝나가면서 전에 가지고 있던 한일관계에대한 걱정이 한층 씻겨지는 기분이였다. 양나라의 젊은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밝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반을 영국에서 보낸 나에게 서로 마주하는 이웃나라가 깊은 갈등의 골로 인하여 매년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을 보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번과

같은 교류회가 더 많아져 좀 더 소통에 힘을 쓴다면 후손에게 득이되는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Research intern at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MESL)

On a hot and humid day of August, at the University of Tokyo, approximately 100 students from bo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the University of Tokyo (UT) gathered to discuss about pressing issues lying behind the two countries. In the previous ‘SNU in Tokyo’ programs, SNU students visited UT for cultural experience, not as interactive debate participants. Starting this year, sharing ideas and debating were added to the program as an event called, ‘SNU-UT discussion.’

Arranged by both SNU and UT, SNU-UT discussion beholds a great significance beyond just a student-run debate for several reasons. First, never have students from Korea and Japan, each from the most prestigious schools from their respective countries, assembled in a single sitting to face issues including China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society, culture,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 addition, the debate was done in 4 separated groups; two in English, one each in Korean and Japanese. Whil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were facilitated only in English, this discussion utilized languages of the participants, recogniz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Asian influence and language in the global world. Even though most experienced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cannot come to an agreement for man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debate was a beginning step for students with shallow knowledge to openly share opinions and build up a common ground of understanding.

As the discussion assistant for English 2 group, I had the privilege to help students convey their opinions in English. While the English 1 group focused their discussion on East-Asian relationships in economy and politics, English 2 group discussed on education and IT. For the first part of the discussion, three graduate students from UT gave brief presentations on education quality in Asia and West and research environment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fields. Then, students in English 2 group divided into two sub groups and discussed on education and IT, respectively.

Kosuke Moriwaki, who studies computer science at UT, briefed students on critical budget shortage for researchers in IT fields: “Even the 2012 Nobel Prize winner on medicine, Professor Shinya Yamanaka has run a full marathon for donations.” In his subgroup, students from two countries shared their views on getting a profession in IT fields and their views on each country seemed to be similar.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 according to Chang-kyu Kim, a senior student at SNU, “budgeting for engineering professors is very limited; thus, it is very difficult for professors to purchase up-to-date equipment or to do long-term research.”

The other sub-group examined the reasons for Asians to study abroad in the western countries. Naosuke Mukoyama and Fumiya Uchikoshi scrutinized the matter with graphs and charts comparing educational qualities of Asian and Western institutes. One of the comparisons that struck me was on the shift in educational advantage from Asian to Western institutes. On one slide, there was a list of schools ranking high school students’ scholastic abilities which clearly showed that Asian institutes provide better secondary school education. Following slides showed th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laureates by different universities and rankings of universities by US News which both proved the opposite. Regarding the charts that portrayed Western institutes surpassing Asian ones, students got to reflect on their changes in study attitude from high school to university years.

In addition to reminiscing about their individual educational history, the students took a further step to discuss how to develop Asian Universities as an educational hub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resenter, the hub-and-spoke distribution paradigm for education simplifies the flow of intellects in this period; Non-western university students will study at their native countries(spokes) and later will gather at Western universities(hub) to pursue higher education. Thus, students came up with ideas such as attracting globally famous professors to Korea and Japan.

There were students who disagreed on the hub-and-stoke theory saying the Western institutes are not the only think tanks of intellects emphasizing the growth of exchange students or international students in SNU and UT. Boboe Lee, a SNU student, mentioned that, “in Thailand or Indonesia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tudents who wants to study in Korea or Japan.”

The SNU-UT discussion was 3-hour event out of 10-day program in Tokyo that allowed the participating students to freely share their opinions and make unforgettable memories. Muro Kennosuke, a second year student majoring in law at UT, said this event enabled him to deepen his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nd infrastructure by engaging into sometimes conflicting but mostly constructive discussions. By working as an assistant of such a historic event, I witnessed young intellectu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futures of Korea and Japan taking a huge step towards mutual understanding and prosperity.

## SNU-UT Discussion 보고서

【E2-토론 보조원】

권용일(동경대 공학대학원 기계공학과 MESL 연구생)

8월 어느 무덥고 습한 날, 동경대에서 서울대(SNU)학생들과 동경대(UT)학생들 약 100 명이 모여 현재 한일 관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전의 “SNU in Tokyo” 프로그램에서는 동경을 방문한 서울대생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는 형식이어서, 쌍방 간에 소통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올해를 시초로 “SNU-UT Discussion”는 “SNU in Tokyo” 프로그램에 추가되었다.

서울대와 동경대가 공동주최한 SNU-UT Discussion은 단순한 학생토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명문대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 안보, 교육, 사회, 문화, IT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토론회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두 그룹은 영어로, 한 그룹은 한국어로, 한 그룹은 일본어로 진행이 되어, 기존에 국제공용어인 영어로만 진행되는 보편적인 국제회의 등과는 차별되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식인이나 정치인만큼 역사적 정치적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양측 학생들은 이 토론회를 통해 미숙하지만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서로간에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 2 그룹의 토론보조자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도와줬다. 영어 1 그룹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정치, 경제에 중심을 둔 반면, 영어 2 그룹은 교육과 IT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토론의 첫 부분에서는 동경대 대학원생 3명이 동양과 서양의 교육의 질 차이와 IT분야의 연구환경에 관해 간단하게 발표했다. 그 후 영어 2 그룹은 두 개의 조로 나뉘어져 교육과 IT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동경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모리와키 코스케는 IT분야의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한계에 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신야 야마나카는 연구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 마라톤을 뛰었다"고 한다. 토론을 통해 양측 모두 이공계전공자들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대해서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대 4학년생인 김창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대교수들이 받는 재정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라 최신실험기기를 구매하거나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조인 마에하라 카즈키와 우치코시 후미야는 동양과 서양의 교육기관들을 비교하면서, 서양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중 흥미로웠던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열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 전세계 고등학생들의 수학능력 비교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이 서양학생들보다 월등히 우수하지만, 대학별 노벨상 수상자수와 대학교 랭킹을 보면, 서양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질의 역전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등학교 시절과 지금 대학교 시절의 공부에 대한 태도를 돌이켜보게 하였다.

개인적인 교육환경뿐 아니라 학생들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 대학을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허브(educational hub)로 끌어올릴 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분야 발표자는 교육체계의 중심기관-연계기관(hub-and-spoke)과 현대 지식인의 흐름에 대해 발표했다. 즉, 동양의 대학생들은 동양(연계기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서양의 대학교나 연구기관(중심기관)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나 연구자를 많이 유치해서 동양의 대학의 질을 높이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에 반해 교육의 중심기관-연계기관 이론을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대 3학년 영어교육학과 이보혜는, 서울대나 동경대로 오는 교환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서양교육기관이 지식인의 유일한 싱크탱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SNU-UT Discussion 은 서울대생들이 동경에서 경험하는 10일간의 프로그램 중 단지 3시간에 불과한 짧은 이벤트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 많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의미있는 추억거리도 많이 만들었다. 동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2학년 무로 켄노스케는 이 디스커션을 계기로 가끔 대립도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토론의 영어 2 그룹의 보조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영재들이 두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